

# 수험생 여러분 고생했어요~ 문화예술로 힐링하세요~

광주박물관, '수험생, 박물관과 소통하다'·'수험생은 자유예요' 진행  
광주시립극단, '섬 옆의 섬'...유스퀘어문화관, 음악가 탄생 기념 공연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6일 마무리된다. 그동안 학업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문화 공연 등으로 해소해 보는 것은 어떨까.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그동안 박물관이 고루하다는 인상을 지우고,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연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수험생, 박물관과 소통하다'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전시관·교육관 일원에서 진행한다. '문화재 빙고', '신안 해저문화재 애니메이션 상영' 등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총 60분간 자율 전시관람과 교육 프로그램 병행)

수험생을 위한 문화행사 '수험생은 자유예요'도 21-24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펼쳐진다. 광주와 정읍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앨범 '스트릿 걸스 파이티어'에 출연해 최종 3위를 기록해 대중적 관심을 받은 '미스몰리' 팀의 댄스 공연을 볼 수 있다. 또 지역 실버오케스트라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 거리 공연가 '뽕뽕이'의 코믹마임 등으로 수험생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박물관 박해영 행사담당자는 "수험생들이 수능을 끝내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라며 "낯설 수 있는 박물관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료 참가. 박물관 누리집에서 오는 17일(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각 학급 담임교사가 신청 가능하며 수험표나 학생증 지참 필수.

연극을 한 편 보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도 좋을 듯하다. 광주시립극단 기획공연 '제2회 창작극공모 당선작: 섬 옆의 섬' (24-25일)은 재난 상황 속

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사회는 2014년 세월호의 참상, 10·29 이태원 참사, 코로나 19 등을 사회 전체가 목도하며 '집단 우울증'에 빠져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을까. 작품은 다시금 일어서는 이웃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의 힘들과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내는 메시지를 등을 전한다. (전석 1만 원, 24-25일 각각 오후 3시, 7시 30분 진행, 13세 이상 관람가)

광주유스퀘어문화관에서 선보이는 클래식 음악가 탄생기념 공연들도 권할 만 하다.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라흐마니노프 in 클라빌레'가 바로 그것. GIC클라빌레가 주최하며 러시아계 미국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라흐마니노프 3중주 엘레지 1번 G단

조', '두 개의 살롱퐁의 소곡'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전석 1만 원)

호신대 음악학과가 여는 '브람스탄생 190주년 기념 한국리트포럼 연주회'도 23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볼 수 있다. 전편 독일 가곡의 정수를 보여주는 브람스의 곡들로 채워지며 전석 무료. (초대)

이외 금남로 서점가에서 진행되는 강연, 토크쇼도 있다. 오는 17일 오후 7시 소년의 서에서 열리는 황지은 작가 토크쇼 '통제당한 추모, 증식하는 혐오의 언어'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같은 시간 책과생활에서 박진수(사회학자), 신현창(책생 사장)이 참가하는 '책과생활 읽는 존재-글쓰기와 장소' 강연도 열린다.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문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험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문화예술계 '할인'이 거의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 창작극 '섬 옆의 섬' 컨셉샷.

<광주시립극단 제공>

## '광대들과 함께하는 사자길들이기 대작전'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 17일 광주서초등학교 등지서 공연

'오르막' 성난 사자가 달려 오는데~ 과연 아이들은 신비한 광대의 힘을 빌려 사자를 길들이 수 있을까?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대표 고현영)은 사자탈 연희공연 '광대들과 함께하는 사자길들이기 대작전'을 지난 5월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15개 초등학교에서 펼치고 있다. 5월 고흥 부안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경기, 충남, 서울 등을 방문해 참여형 예술프로젝트를 선보여 왔다.

오는 17일에는 광주서초등학교 등지에서 공연을 펼친다.

프로그램은 자타공인이 자체 개발한 사자탈만들기 키트를 활용한 참여형 예술교육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직접 사자탈을 제작한 뒤 이를 활용해 '사자

탈춤'을 배우게 된다. 사자탈춤도 직접 취할 수 있다. 학생들은 출연진(광대)과 어우러져 탈춤의 시작을 알리는 '사자탈 길놀이'를 펼치게 된다. 또 커다란 사자탈을 쓰고 추는 '진짜 강령사자탈춤', 상모와 사물악기의 신명이 담긴 '바람을 가르며 풍물놀이', 바나나를 볼 수 있는 '광대들의 왕중왕전' 등 연희공연도 마련된다.

자타공인 고현영 대표는 "전통예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국 초등학교에서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전통예술을 사랑하고 지키며, 계승해 나가는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자타공인이 자체 제작한 사자탈만들기 키트를 활용해 학생들이 사자탈을 만드는 모습.

## 삶을 경제적으로 꾸리는 안목과 힘

한순구 교수 '당신의 경제IQ를 높여라' 펴내

"돈이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물으면 사실 경제학자인 나도 답이 궁해진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묻는다면 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일어나기 힘들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능, 즉 IQ에 관심이 많다. 또한 감성지능인 EQ에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에는 그다지 애정을 쏟지 않는다. 바로 '경제IQ'가 그것.

연세대 경제학부에서 36년간 경제학을 강의하며 경제학의 원리를 생각하며 살아온 한순구 교수가 최근 '당신의 경제IQ를 높여라' (삼성글로벌리서치)를 펴냈다.

경제IQ는 단순히 돈을 잘 벌거나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재능만을 일컫지 않는다. 그보다 정확한 계획과 합리적 선택을 통해 인생의 낭비를 줄이고 삶을 '경제적'으로 꾸리는 안목과 힘을 말한다.

경제적인 삶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은 '시간'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20대의 1시간과 50대의 1시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아껴야 할 귀중한 자원



이자, 돈을 버는 일의 기초가 된다.

저자는 오늘날의 세계는 큰 변화 앞에 직면해 있다고 단언한다. 급격한 변화는 이전에 세웠던

경제계획에도 타격을 가한다.

이밖에 책에는 AI, 플랫폼 산업 등 기술발전 외에도 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대한 경제학자 나름의 견해가 담겨 있다. 다음은 한 교수가 30년간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다.

"사람들이 흔히 예상하는 바와 다르게 경제학은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이 아니었다. 경제학은 나와 가족이 죽는 날까지 경제생활을 잘 영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으로, 미리미리 수입에 맞추어 지출계획을 세움으로써 가족이 굶는거나 자녀의 교육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 등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어촌마을 숙박하며 수산자원 탐사

'고흥굴막 아카이빙 프로젝트: 채굴채굴' 참여자 모집

전남 고흥군 취도-금사항권역을 중심으로 로컬프로그램 제작팀 '해변의 카카카(대표 정소형)'가 '고흥굴막 아카이빙 프로젝트: 채굴채굴'에 참여할 아티스트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마감일까지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됐으며 오취·사도마을에서 닷새 체류 가능한 예술가 5인을 모집(장르부관)한다. 1백만 원의 활동비, 숙소, 마을산업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오는 20일부터 오취·사도마을에 머물면서 수산자원 굴, 굴막(굴을 손질하는 막사)을 기록하고 탐구하게 된다. 마을은 해양자원을 품은 어촌마을이며 2023년 해수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프로그램은 1일차에 마을을 둘러보며 지역

자원 굴막을 살펴보고, 2일차에 마을활동가를 만난 뒤 굴 요리 등을 맛본다는 계획이다. 이후 굴막에서 굴 손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굴 채취하기를 진행하며 마을주민 인터뷰 및 갯벌 바지락 채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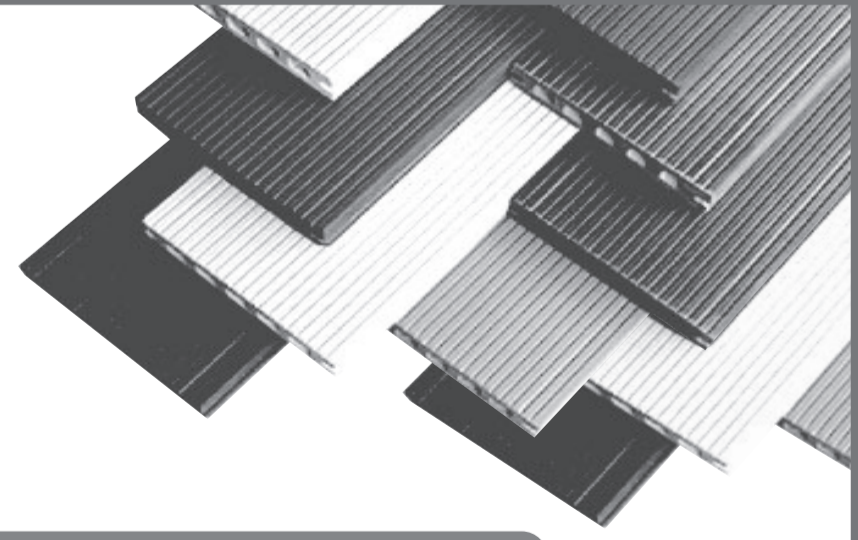
활동이 끝나면 아카이빙북 '채굴채굴(가제)'을 12월 말 제작할 예정이다. 채류일지와 회고록, 마을주민과 예술가 인터뷰 등을 수록하며 현장 사진을 담게 된다.

프로그램을 주관·운영하는 해변의 카카카 팀은 "예술작업이란 거창한 일이 아니라 특정 공간의 특수성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것"이라며 "굴막이라는 공간에 담겨있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희소현 로컬콘텐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